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2월 25일(넷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목상

예배로의 부름		인도: 김성진 집사
찬양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28장)	다 함께
*교독문	70번	다 함께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369장)	다 함께
기도		김동진 형제
찬송	맘 가난한 사람(427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그리스도인 6: 바르게 해야 할 인생의 건축(고전 3장 10-15절)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204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금주 읽을 성경: 시편 126-133편, 열왕기상

-3월 기도 담당

현윤경 집사(4일), 장연재 형제(11일),
김동진 형제(18일), 김성진 집사(25일)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이젠 우리 각자가 내 주님 모시고 일어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 주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 형제를 때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내 주님의 숨겨진 그 귀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주님 곁에서 조용히 일어서야만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내 주님 곁에서 행복해하며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서 보셔요.

결코, 결코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가능한 일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란 말씀이 실감 날 거예요. 어쩐지 삶이 오히려 여유 있어 보이고 견고해져 감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섬길수록 더욱 섬기고 싶은 귀하신 내 예수님!!”이란 하늘의 곡조가 가슴 속에 솟아오를 거예요.

다 잠든 밤, 별은 깨어서 더욱 반짝이듯이 이 같은 깨어있음은 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 삶으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그 밤에 하늘 이슬 가까웁듯이, 그 언제나 주님 그리움에 그리고 그 사랑에 젖어있는 맑고 순전한 주님 위한 가슴은 예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별과 별이 가까웁듯이 그 먼 곳의 일꾼님들도 반짝이는 이웃 별처럼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진정한 마음의 중보기도는 어두운 온 밤을 내일의 밝음을 위해 하늘의 은총을 이끌어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실상이 되신 예수님

유현지

뽕뽕 얼어붙어 다시는 아무 것도

품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황량한 겨울 들판.

그 도도한 버팀은

어느덧 겨울 끝자락에서

잔설을 녹이고

얼음장 밑 시냇물은 머지않아

제 길을 찾아

다시금 소리 내어 흐를 듯합니다.

이렇듯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순환하며

그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몸짓으로

순응하는 자연의 질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찬양하는

나의 노래가 됩니다.

주님!

날마다 허락해주시는

나의 날들 속에서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 얻을 수 있음은

주님이

나의 실상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딛고 선 땅이

그 끝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도

주님이

나의 실상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단한 내 영혼 사랑하셔서

이토록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속으로 불러주시니

진정 내 영혼이 축복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어진 길들 속에서 드리는

나의 모든 감사가

주님께 드리는 향유로

언제나 메마르지 않게 하소서.

생기 있는 자로

유재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자리 잡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곁에 계셔 힘주시기에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늘 하늘 보좌 바라보며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생기 있는 강한 자로

잘 달려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2월 25일(8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ui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